

### 어린이법회 지도자 첫 자격시험

#### 조계종, 구랍 20일 70여명 응시

어린이 포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을 가운데 어린이 법회 지도자 자격고시가 최초로 실시돼 관심을 모았다.

2003년 12월 20일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영) 강당에서 실시된 '제1회 어린이법회 지도자 자격고시'는 조계종 포교원이 주축하고 대한불교교사대학이 주관한 어린이법회 지도자 첫 자격시험. 70여명이 응시한 이날 자격고시는 50분씩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자격고시는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주관식 등으로 나뉘진 60문항으로 사찰예절, 불교문화, 불교상식,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교리 등 폭넓은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어린이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자세' '법회에 잘 나오던 어린이가 법회에 잘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등 어린이법회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점검하는 서술형 문항들이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법회 지도자 자격고시 합격자에게는 조계종 포교원이 자격증을 주게 되며 이는 종단 차원에서 어린이법회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최초의 공식 인증서여서 의미를 더한다. 김광호 대한불교교사대학 홍보부장은 "자격증을 받는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종단에서 어린이지도자의 자질을 점검하고 자격증을 주는 것은 어린이 지도교사 배출에 기준을 갖게 되는 역사적인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보완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 자격증에 걸 맞는 대우,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의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 조계종단 차원의 교과내용, 평가기준 수립 등이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천미희 기자



◇어린이법회 지도자 자격시험을 치르고 있는 응시생들.

### 日국보급문화재 등 83점 경주박물관서 특별전시

일본의 국보급 불교문화재들이 한국에 첫나들이를 왔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박영복)에서는 구랍 12월 20일, 일본 나라국립박물관과 공동주최로 '일본의 불교미술' 특별전을 개막했다. 전시기간은 2004년 2월 1일까지.

이번 특별전에는 일본이 받아들이고 민중적 정서와 감성으로 자국화시킨, 아스카(飛鳥)시대부터 가마쿠라(鎌倉)시대까지의 금동불, 목조불상 등의 불교조각, 불교회화, 금속공예, 전적류 등이 선보인다. 62건 83점이 전시되는 불교미술 가운데에는 국보 9점, 중요문화재 25점이 포함돼 있다. (054)740-7538

천미희 기자

### 심인고 교사국악회 공연

심인고등학교 교사국악회가 12월 28일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10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연주회에서는 수연장지곡과 대금산조, 대취타, 김천교사국악회의 창조공연, 동요합창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김은경 기자



◇새벽에 불에 앞서 향을 올리는 박종부, 안태선 부부.

## 연말연시 옹맹정진 10년째 박종부 거사 내외 한해 한해가 새롭고 감사해요

"지난 한해 감사했던 일들을 모든 분들께 회향하고 새해에는 더욱 정진하겠다는 서원을 담아 일주일 기도를 올립니다."

10년 전부터 매년 연말과 연초에 일주일동안 휴가를 내고 출가자의 마음으로 옹맹정진에 들어가는 박종부(51.기계제 작회사 대표) 일주 휴가... 참회·서원 담은 기도로 새아침

(47) 보살은 율해도 변함 없이 경남 고성 현불사(주지 일화)를 찾았다. 바쁜 일상에 쫓겨 좀처럼 기도와 정진 시간을 갖기 어려웠던 부부가 일상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정진을 위한 휴가를 단행한 것이 벌써 10년째를 맞았다. '일주일은 없는 셈치자'고 마음을 다져먹고 아무리 급한 연락이 와도 기도만은 회

향했다. 이렇게 현불사로 입산, 하루 삼천 배의 절을 올리는 동안 현불사는 이들 부부에게 출가본사와 같은 마음의 고향이 되었고, 일주일 기도는 자성(自性)을 일깨우는 수련처로 자리잡았다. 갑신년 새해 첫날도 서원을 담은 기도로 맞이했다. 불전에 향을 올리며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마음으로 시작한 기도는 새벽예불, 금강경 독송, 절 수행으로 이어졌다. 몇 년 동안은 매일 삼 천 배를 올렸는데, 지금은 절을 천 배로 줄이고 사찰 일을 돕는 올력 기도를 올렸다. 저녁예불, 천 배, 금강경 독송이 끝나는 오후 10시쯤, 하루

일과가 끝이 난다. 기도를 시작한 첫해에는 너무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을 이겨내며 기도를 회향한 후 찾아온 환희심과 일상의 변화는 평소의 수행을 한층 더 다짐을 수 있는 활력소로 찾아왔다.

갑신년 새해 첫날도 서원을 담은 기도로 맞이했다. 불전에 향을 올리며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마음으로 시작한 기도는 새벽예불, 금강경 독송, 절 수행으로 이어졌다. 몇 년 동안은 매일 삼 천 배를 올렸는데, 지금은 절을 천 배로 줄이고 사찰 일을 돕는 올력 기도를 올렸다. 저녁예불, 천 배, 금강경 독송이 끝나는 오후 10시쯤, 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해태(懈怠)해져가는 마음을 다잡는 재발심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는 부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불법을 만나 수행할 수 있게 된 감사함과 이웃과 더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더욱 정진하겠다는 발원이 더욱 깊어진다"며 두 손을 모았다. 천미희 기자 micheon@buddhapia.com

### 종교벽 넘어는 훈훈한 세모 온정

#### 구미시암련, 불자들 성금 모아 가톨릭 재단 운영 시설에 지원

구미불교 사암연합회(회장 정우)는 지난 해 12월 16일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성금을 기탁해 종교간 벽을 뛰어넘는 자비실천으로 화제를 모았다. 구미불교 사암연합회는 구미 오성예식장에서 가진 송년의 밤 행사에서 스님과 불자

들이 모은 성금 백만원을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기탁했다. 구미불교 사암연합회 회장 정우 스님은 "구미지역에 불교계가 운영하는 시설 중에도 어려운 이웃이 많지만, 이웃을 돕는 마음은 종교를 떠나 한 마음이라는 취지에서 가톨릭 재단 시설에 성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영천 충효사(주지 해공) 부설 사회복지법인 충효자비원은 12월 25일 생명사랑 자비실천의 일환으로 행려자와 무의탁 노인들의 안식처인 천주교 성모자애원 나자렛집을 위한 방문했다. 10년동안 매년 나자렛집을 방문해온 충효자비원은 이날 정수기 2대, 내외 100벌, 속옷 2박스, 라면 30박스, 고등어 50박스 등을 전달하고, 초창기수 및 풍물패 공연, 디

#### 충효자비원, 나자렛의 집 방문 내외·라면 등 전달, 위문공연

스코 한마당 행사를 열어 수용자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해공 스님은 "많은 것을 나누지 못해도 그저 따뜻한 손 한번 맞잡기 위해 방문했다"며 "자비의 손길은 때와 장소, 종교, 이념, 국경도 초월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 치매 어르신 작업요법 발표회 도자기 공예 등 40점 전시·판매

#### 용호복지관, 수익금 전액 이웃돕기에

지난해 12월 24일 용호복지관 2층 강당에는 용호복지관 치매 노인들의 작품 발표회가 열렸다. 이 발표회는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커다란 기쁨과 보람을 안겨준 행사로 치매 어르신들의 한해 마무리를 대신했다. 작업요법은 치매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이긴 하지만 다른 요법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복지관에서는 잘 실시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용호복지관의 이번 작업요법 발

표회는 다른 복지관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2003년 한해동안, 칼라 믹스로 얼굴을 만들고, 종이로 꽃을 접으며 용호복지관 치매 노인들은 세월을 잊었다. 올해로 2회 짝을 맞은 작업요법 발표회에는 치매 노인들이 일주일에 한번, 1시간씩 꾸준히 공을 들여 만든 칼라믹스, 종이 공예, 도자기 공예 등 작품 40여 점이 전시, 판매됐으며 판매수익금 전액은 이웃을 위한 후원금으로 기탁돼 의미를 더했다. 천미희 기자

성탄절을 맞아 대구지역 불교계가 성당을 방문하고, 크리스마스 스트리를 세우는 등 종교간 교류에 적극적이다.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25일 밤 어성당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기념 미사에 참석해 축하 법문을 했다. 이에 앞서 동화사 사회국장 법문 스님은 24일 대구시 불로성당과

계산성당 등을 방문해 불교계의 축하 메시지와 화분을 전달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오케스트라 실내악단은 12월 18일 미군부대를 방문,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케틀 등을 연주했다. 23일에는 미군부대 교회 성가대가 영남불교대를 찾아 찬송가를 합창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대구불교계 종교교류 활발**  
지성 스님, X-mas 미사 참석 축하 법문  
영남불교대 실내악단, 파티 케틀 연주

### 국제고승백고좌 대법회

국제불교승가회(회장 동암)는 12월 24일 청주 사직동 시민회관에서 국제고승 백고좌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는 남북통일을 위한 기원제, 공인법위증서 봉정식, 신도수계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원우 기자

### 캄보디아 불교복지시설 '연화원' 기금 마련 선화회

캄보디아 불교복지시설 '연화원' 설립 기금마련을 위한 선화회가 12월 15-24일 광주 남도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선화가 묘각 스님(대각암 주지)의 탈마도, 관음도, 문수동자 등 선화와 성불도, 부영이 등의 채색화 45점이 전시됐다. 묘각 스님은 전시회 수익금 전액을 캄보디아 씨알엔터 건립중인 한국 사찰과 복지시설 연화원 건립기금으로 내놓았다. 묘각 스님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10만평 부지를 제공받아 포교원과 복지시설을 건립중이다"며 "신년도에 본격적인 건립부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TEL: (02)994-3947 FAX: (02)994-3948 세상을 여는 창

# 산사에서 바람과 나누는 조출한 대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현 수좌가 이런 책을 내놓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평소 그의 선심과 성실함에 눈길을 주어 온 내게, 이것은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宋月珠 전 조계종 총무원장

조출하고 정갈한 글모음이다. 군더더기 없는, 곳곳하게 목을 세우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글의 잔치가 우리를 즐겁게 한다. 그리하여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로 다가가게 만든다. -박관우 불교방송 기자

##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

지현 스님 지음 / 240면 / 값 9,500원